

		<h1>도 자료</h1>			
http://www.motie.go.kr					
2020년 11월 2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1. 25(수)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과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권현철 과장(044-200-2216)	담당자	김남석 전문위원(044-200-221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044-203-5150)		박환준 사무관(044-203-5154)		

올겨울, 석탄발전 감축과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 ▶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 및 나머지 발전기는 최대한 상시 상한제약
 - * 미세먼지 배출량, 계절관리제 시행전 대비 2,289톤(△43%), 지난해 대비 181톤 저감
- ▶ 피크저감 목표제, 적정온도(20℃) 지키기 캠페인 등 수요관리 강화
- ▶ 코로나 대응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등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 실시
- ▶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시행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산림청·기상청장, 중소기업 음부즈만, 한국소비자원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전력수급 전망

-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 (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 적용
- (전력공급 전망)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

구 분	최대전력수요 (A)	최대공급능력 (B)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A)
1월 3주 (전력피크)	8,760 (기준전망)	10,557	1,517(예비율 16.8%) (상한전망시)
	9,040 (상한전망)		1,797(예비율 20.5%) (기준전망시)
2월 1주 (최저 예비력)	8,590 (기준전망)	10,266	1,346(예비율 15.1%) (상한전망시)
	8,920 (상한전망)		1,676(예비율 19.5%) (기준전망시)

*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피크는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상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 (감축방안)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①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②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 우선,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

** 작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계약 (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 (18.12~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③ 전력수급 대책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시행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94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등 정밀점검 시행
 - **(LNG수급)**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 (예산)667→720억원, (대상)65.4만→67.3만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원→10.7만원
-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 계획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일시 : **11월 30일(월)**
- 장소 : **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舊 당인리발전소, 서울 마포구 소재)**
-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발전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박환준 사무관 (☎ 044-203-51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